

**실내건축공간에 ‘한국성’ 적용을 위한 디자인개념 추출

Extract of design concepts for the application of 'Korean characteristics' to Architectural Interior Design

유영희*/ Yoo, Young-Heui

Abstract

This study focuses 'Korean characteristics' in architectural interior design. In this study, some Korean characteristics was extracted by analysing traditional Korean spaces and as well as by considering the architectural interior spaces which are designed with Korean character since 1970. This paper started with differentiating the elements and principles that consist of space, and then classified the elements into 8 categories such as Spatial system, Enclosure system, Circulation system, Material system, Furnishing system, Light, Color, Context which are analysing frames. As a conclusion, the concepts of Korean characteristics are extracted and suggested as design concept with Korean characteristics by analysing the contents of each category. These concepts were presented with simple diagrams and supporting cases were also presented in this paper. The design concepts of 'Korean characteristics' are classified in the 25 concepts: Holonic composition, Transitional space, Hierarchy by floor level, Gradation of privacy, Changeability, Various central yards, Space with opened edges, Gray space, Continuity of space, Translucent wall, Folding-lifting wall, Skeleton, Abstract facet, Path as a message, Mild light, Multi-layered vista, Fluidity, Framed scenery, Serial view, Interpenetrating Space, Harmony with nature, Organic interrelationship, Complementary Dual Structure, Temporal change of space, Hierarchical order.

키워드 : 한국성, 디자인 개념, 공간구성요소, 공간구성원리

keywords : Korean characteristics, design concept, the element that consist of space, the principles that consist of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개념 형성은 디자인에서 기초 준비 과정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건축공간을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실무나 교육 양쪽에서 모두 개념 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대개는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과정상에서 단편적인 방식으로만 접하게 될 뿐, 실제로 이러한 개념 형성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것은 디자인 출처의 순수성에 의한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면서, 획득 가능한

정보를 통해 개념을 형성하거나 이용 가능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표출해내는 훈련에 대해서는 등한시 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창의성은 보다 많은 앞에서 나온다. 디자인에 있어서 독창성이란 기존의 이용 가능한 개념들과 전략들을 제2의 본질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산출해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창의적으로 선택, 조합변환, 조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¹⁾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여러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디자인의 특성들을 개념화시키고, 또 이것들과 이미 단편적으로 개념화된 것들을 체계적이며 유형적으로 정리해내고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적인 특성이 담긴 공간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소위 '한국성'이 담긴 공간을 디자인 하는데 참고가 될 디자인 개념들을 새로이 추출해 내거나 혹은 이미 개념화된 것들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특성으로만 알려진 것들을 특정한 디자인의 명칭을 사용하여 개념화시키고, 또 기존에 개별적이며 단편적

* 정회원, 협성대 실내디자인 전공 부교수, 이학박사

** 이 연구는 미국에 있는 Cornell대학 Interior Design 학과 Jan Jennings 교수의 연구과제인 'CDE (Cornell Design Exchange) and Design Brief Series' 연구의 일부로서 진행된 내용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적 디자인 특성에 대한 개념화 작업은 Jan Jennings 교수의 디자인 개념화 작업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이것은 web-site (<http://designexchange.cornell.edu>) 상으로 제시되어져서, 미국 Cornell 대학 및 협성대학교의 실내디자인 전공 스튜디오 수업에서 필요한 자료로서 활용되어질 것이다.

1)Edward T. White 著, 조철의 譯, Concept Source Book, 서울: 시공문화사, 2002, p.11.

으로 알려진 개념들을 범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적 특성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개념화시키고 유형별로 체계화시킴으로 추상적인 개념들을 보다 구체화시켰고, 그 결과 실제 디자인에서의 적용을 용이하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이 연구는 디자인 행위에서 개념을 형성하거나 개념을 표출해 내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개념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실제로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한국성' 디자인의 개념 정의

실내건축공간 디자인에서의 '한국성'이란 우리의 과거 건축 공간에서부터 현대 건축공간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적 디자인의 특성을 의미한다. 한국 건축계에서 '한국성'이 논의가 된 것은 서구 건축과의 관계에서 차별성을 전제로 우리나라 전통 공간의 특수성을 규명하고 우리 문화의 원형(archetype)을 도출하려는 '전통성'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현재 현대건축에서도 어떻게 한국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적 디자인의 특성도 디자인의 한 특성인 한, 보편적 디자인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디자인에서의 '한국성'이란 것도 사실은 서양과 동양을 넘어선 보편적 디자인의 요소로 표현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예에서 보듯이, 서양과 동양의 건축디자인이 변증법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서의 한국적 특성 역시 범세계적 보편성을 얻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디자인 특성들도 보편적 디자인 요소로 표준화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각각의 특성들을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여 개념화시키고 유형화시키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유형학적(Typology) 연구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은 유형학적 연구방법을 택한다. 유형학적 연구란, 인간이 만들어내는 산물(production)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유사한 것으로 만드는 어떤 고유한 특성들로 그룹화(grouped) 시키는데 중점을 갖는 연구의 한 형태이다.²⁾ 지금까지 공간 디자인에 한국성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들 연구들은 체계적이기 보다는 단편적인 특성 제시로 머물러 왔다. 또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난해해서 실제 구체적인 공간을 형성해 내기위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건축적 공간의 디자인 연구에 있어서 '유형학'적으로 접근하

는 방법은 이미 그 효용성이 알려져 있다. Lyndon and Chales Moore는 이와 같은 패턴(patterns)이나 일정의 유형(Types)들은 디자인 행위에서 '목적(goal)'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starting point)'이 되는 것으로, 디자인 문제에 접근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³⁾ 또 Aldo Rossi는 이들 유형들은 필요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열망에 따라 발전된 것으로서, 과거와 연결시키는 매개체이며, 대상의 본질에 대한 폭넓은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작품을 일반화시킴으로서 그것이 일정한 체계를 지닐 수 있도록 해주는 최초의 불변성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였다.⁴⁾ 이와 같이 '유형'은 디자인 해결의 원천이 되며 착상을 위한 최소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디자인 방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므로 한국적인 특성이 담긴 공간 디자인을 위해 참고가 될 디자인 개념을 추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유형학적 연구 방법은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유형학적 연구방법으로서, 기존 문헌을 통해 전통 건축공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적인 특성이 담긴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 공간 사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먼저 유사한 성격을 갖고 나타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나 일정한 패턴들을 그룹화 하고, 그러한 유형들의 특성들을 적절한 단어로 명명할 것이다. 그런 연 후, 시각적 이미지로의 변환을 위해 다이어그램(도식)으로 제시하고, 그 특성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개념들을 추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 분석방법, 대상, 범위

유형화를 위한 분석틀을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와 공간을 구성하는 원리를 구분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시 공간체계, 에워쌈 체계, 동선체계, 재료체계, 가구체계, 빛(조명), 색, 컨텍스트 체계의 8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8가지 공간구성의 범주들에 따라 각각의 디자인 개념들을 범주별로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분석대상은 조선시대의 전통건축 공간과, 1970년대 이후 건축된 건축 및 실내공간으로 한국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상을 분석한 문헌들을 내용분석 하였다. 내용분석한 대상은 책 5권, 학위논문 4권, 학회지 및 잡지에 실린 논문 8개, 1997년-2004년까지 INTERIOR 및 PLUS 잡지에 실린 사례들과 내용들이다.(각각의 구체적 제목들은 참고문헌에 제시함)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분석대상 조사 자료의 한계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8가지로 분류된 범주의 범위에 한정된다.

3) Lyndon and Charles w. Moore, Chambers for Memory Palace, Cambridge: MIT Press, 1996, p.223.

4) 한경희·이선민, 실내계획이론으로서의 유형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지, 16호, 1998, p.154에서 재인용.

2) Micha Bandini, Typological Theories in Architectural Design, Companion to Contemporary Architectural Thought London: Routledge, 1993, pp.387-395.

2. 디자인 개념 추출의 이론적 배경

2.1. 디자인 개념(Concept)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 '개념'(Concept)이란 '생각', 'idea'와 같은 것이다. 특히 건축 디자인과 관련하여 '개념'이란 '최초의 막연한 상태의 아이디어,' '디자인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의 기본 진술', '프로젝트의 상황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심상(mental image)', '주요한 프로젝트의 논점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예비적 문법', '건물 형태 조직에 관한 디자이너의 최초 아이디어'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 전통적으로 건축 개념이란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디자인 상황에 디자이너가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비물질적으로 진술된 문제를 건물이라는 물질적 산물(형태)로 번역해 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⁵⁾ 따라서 디자이너는 주어진 프로젝트의 상황이나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이들로 부터 파생된 개념 혹은 대응하는 방식의 개념을 사용하여 다루어 나가야 한다.

2.2. 개념의 형성 및 발전

초기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개념은 '참신한 아이디어(big idea)', '기초구조(basic framework)', '기본 형성체(prim organizer)'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건축 공간에서 이러한 개념은 보통 계획 과정의 초기 디자인단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개념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 기본 계획 및 디자인의 발전 단계 등 디자인 과정상의 어떤 단계에서나 생겨날 수 있다. 또한 디자이너는 보통 포괄적인 형태로 개념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형태를 만드는데 있어서 특정한 디자인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상에 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개념의 발전이 필요하다.

디자이너에게 최초로 떠오르는 개념은 단어나 시각적 이미지 혹은 이 둘을 모두 포함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개념을 간결하게 단어로 표현하고 자신의 단어를 다이어그램 작업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자기 발견적 교수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개념을 시각적 형태로 변환시키게 되면 물리적 형태 혹은 건축 공간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 근접하게 된다. 즉 건축 공간디자인의 개념은 디자인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 가지의 근원으로 부터 생성되기도 하고, 위계적 특성을 가지고 고유한 문제들을 내포하며 형성된다. 따라서 하나의 건축 공간디자인과 관련하여 많은 디자인 개념들이 관련되며, 아무리 소규모의 프로젝트라도 상당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공간의 모든 상황들을 동시에 단 하나의 개념으로 다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몇 개의 부분으로 분류하여 각각을 개별적으로 다룬 후, 다시 종합하여 이들이 하나의 전체로서

관련성을 가지며 공존하는 건축 공간이 되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2.3. 실내건축 공간 디자인 개념 유형화를 위한 분석틀

실내 건축 공간디자인 개념들을 유형화시키기 위한 분석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내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구성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구성체계에 대해서는 여러사람에 의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된 바 있다. Edward T. White는 디자이너들은 기능적 범주, 공간적 범주, 순환 및 형태적 범주, 맥락적 범주, 물리적 구성요소적 범주 등 다섯 가지 개념의 범주에 의거해 건축 공간 디자인을 실행하고 전개하며 또 이들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한다.⁶⁾ 거기에 반해 Francis D.K. Ching은 건축의 시스템은 공간체계, 구조체계, 에워쌈의 체계, 움직임을 통한 경험과 관계된 동선체계, 프로그램체계, 주변 환경의 문맥과 관련된 컨텍스트 체계들이 질서 있게 관련성을 가지고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들 중 건축 공간의 기본 요소가 되는 공간의 형태와 구성, 동선, 에워쌈, 빛, 조망 등의 측면과 공간 조형을 형성하는 디자인 원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디자인 개념들을 소개하였다⁷⁾. 또 오인옥은 특히 실내건축공간과 관련하여 공간의 형태, 구성체계 외에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물리적인 요소로써 바닥, 벽, 천정, 개구부, 통로 공간, 그 외 재료, 가구, 조명, 색채 등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⁸⁾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념들을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틀에서는 먼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와 공간을 구성하는 원리가 구분된다. 공간을 구성하는 원리는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낱개 하는 사상적, 문화적 배경이 되는 것으로서,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구체적 내용들은 이 원리들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시 공간체계, 에워쌈 체계, 동선체계, 재료체계, 가구체계, 빛(조명), 색, 컨텍스트 체계의 8가지 범주로 더 세분화된다. <표 1>은 이 분류틀에 따라 기존 문헌들에 이미 소개된 디자인 개념들을 재정리한 것이다.

6)Edward T. White는 하나의 건물에 관련된 관심사항과 쟁점들의 범주들 a) 기능적 구획(functional zoning) b) 건축적 공간(architectural space) c) 순환동선과 건물의 형태(circulation and building form) d) 주변 문맥에 대한 대응(response to context) e) 건물의 물리적 구성요소(building envelope)로 분류하여 각각에 다양한 디자인 개념들을 소개하였다. Edward T. White, Ibid., 2002.

7)Francis D.K. Ching, ARCHITECTURE Form, Space, and Order, Wiley, 1996.

8)오인옥, 실내디자인학, 기문당, 2002.

5)Edward T. White, Ibid., 2002, p.19.

<표 1> 실내건축 공간 구성 체계 및 디자인 개념(유형)^{***}

분류		디자인 개념(유형)		
공간 체계	형태 (Form & Space)	기본형태(원, 정삼각형, 정사각형) 기본입체(입방체, 원뿔, 구, 원통, 피라미드), 규칙적/불규칙적 형태, 형태의 변형, 치수의 변형, 삭제된 형태, 첨가/삭제된 형태, 첨가적 형태, 선형, 방사형, 집합형, 격자형, 기하학의 형태적 상승, 회전된 격자, 형태의 분열, 모서리/모퉁이 열림, 표면분열		
	공간조직, 구성 (Spatial Organization & Composition)	기하학적 구성(격자형구성, 사선그리드, 원형모듈구성), 유기적 구성, 규칙적/불규칙적 구성, 선형구성(수평적, 수직적, 사선구성), 중심형 구성, 원심형 구성, 방사형구성, 집합형 구성, 공간 안의 공간, 맞물린 공간, 인접하는 공간, 공동공간에의해 연결된 공간, 정적인 공간, 흐르는 공간, 포괄된 공간, 분절된 공간, 방향성이 있는 공간, 압제적 공간, 폐쇄/개방적 공간구성, 구획된 공간구성, 무정형의 공간구성, 배타적인/통합적인 공간구성, Anthropometric space, Hierarchy by orientation, Organic growth, Spatial collage, White cube, Thin membrane.		
구성 요소	예워쌈 체계	바닥	상승된 바닥, 하강된 바닥, 안과 밖의 연속(불연속), 기준바닥면의 한정	
		물리적 구성요소	벽	수직선형, 단일수직면, L형의 면, 평행수직면, U형의면, 4면을 둘러쌈. 유리를 관통해 연속하는 벽, 초점으로서의 벽, 벽.바닥.천장의 연속, 배경으로서의 벽, 벽면의 형태를 강조, 스크린으로서의 벽, 이동 가능한 벽, Dematerialized wall, Diaphanous wall, Iconic wall, Infinite wall, Luminous wall, Niche, Thin membrane, Walldwelling
			천장	내려진 천장, 올려진 천장, 실비 천장, 조명 천장, 노출된 천장, 지붕면으로서의 천장, 안에서 밖으로 연속되는 천장, 나비형, 단지형, 아치형, 평형, 오목/볼록형, 경사형, 걸침형, 꺾임형, 반구형, 계단형, 부정형
	개구부	평면내, 모서리에, 평면사이에, 천공, 볼임, 절삭, 혼합, 창벽, 불규칙한 창문으로 이루어진 그리드, 다양한 형상의 창문으로 이루어진 그리드, 돌출 및 만입 창문으로 이루어진 그리드, 창문으로 이루어진 띠, 프레임 있음/없음		
동선체계 (Circulation)		선형, 방사형, 나선형, 격자형, 그물형, 점형, 혼합순환동선, 다중순환동선, 공간의 옆을 지나(위, 아래, 옆, 대각), 공간을 관통함, 공간안에 종착, Memory path, Meandering path, Internal plaza, Room as corridors, Showcase stair, Sprit road/Sculpture row.		
재료 (Material)		Accretion, A little museum, Authenticity, Honesty, Living in convenience, Mixture or fragment, Narrative, Skeleton		
가구 (Furnishing)		붙박이(고정)가구, 이동식가구, 간막이 가구, 유닛가구, 시스템가구, 건축적 가구, 장식용 가구, Objets-type, Miesian arrangement, On the floor, Accretion, A little museum, Authenticity, Honesty, Living in convenience, Mixture or fragment.		
빛, 조명 (Lighting)		점의 조명, 선의 조명, 면의조명, 장식조명, Animated field, Dematerialized Wall, Exaggeration, In praise of shadows, Light as sculpture, Light box, Light contour, Light seam, Light space, Light that plays, Light trough, Luminous wall, Mystic light, Pagan light, Poetic light, Reflective light, Shadow pattern, Translucent wall.		
색 (Color)		Pretty, Romantic, Clear, Casual, Fresh, Dynamic, Gorgeous, Classic, Elegant, Dandy, Cool, Modern, Accent		
컨텍스트	조망(View)	Borrowed View, Framed View, Enfilade, Fluidity, Internal vista, Serial view		
	내외부공간의 관계 (Inside&Outside Relationship)	Borrowed scenery, Fluidity, Transactional space		
구성원리		비례(황금비례, 모듈, 고전적 질서, 르네상스이론, 칸(間), 인체측정학적비례), 대칭, 균형, 대비, 리듬 스케일 (친근한 스케일, 표준스케일, 기념비적인 스케일, 충격적 스케일, 휴먼스케일), 위계, 기준, 반복, 변형, 조화		

*** 이 표는 Francis D.K. Ching, Edward T. White, 오인욱·김홍기, Jan Jennings(Interior design briefs, <http://designexchange.cornell.edu>, 2004. not published)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완결된 것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공간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개념들이 지속적으로 첨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적 특성들을 개념화 시킨 25가지의 개념들과 원리들 가운데 대다수는 여기에 더 첨가될 수 있다.

3. '한국성'이 담긴 디자인 개념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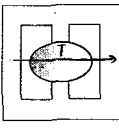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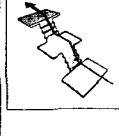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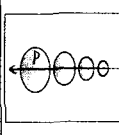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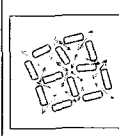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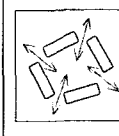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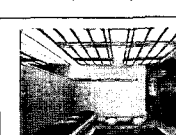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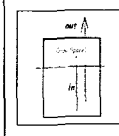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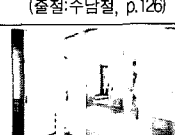

3.1. 실내건축 공간의 구성요소적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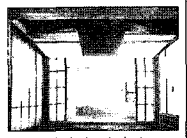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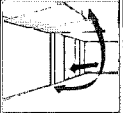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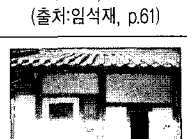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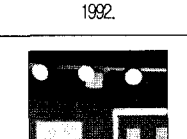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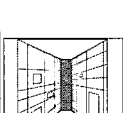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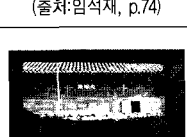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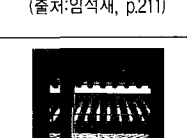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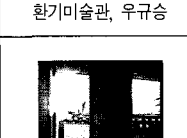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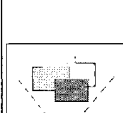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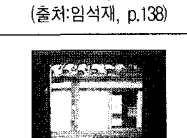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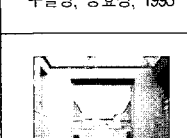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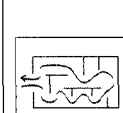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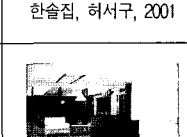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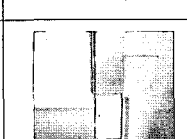
지금까지 실내 건축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한국성', 즉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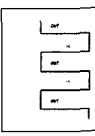


적 디자인 특성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것들이 특정한 디자인의 개념으로 명명화가 되지는 않았다. 디자인의 특성들은 특정한 명칭을 가지고 명명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개념화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논의 되었던 한국적 디자인의 특성들을 특정한 단어로 명명함으로써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한다.⁹⁾

9)한국적 디자인 특성을 개념화하기 위해 몇 가지 개념은 Jan Jennings 교수의 디자인 개념을 차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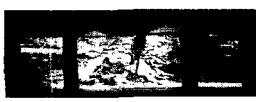




<표 2> '한국성' 공간디자인 개념 추출(구성 요소 적 측면)

디자인 개념	요소	도식	특성	전통공간사례	현대공간사례
홀론적 공간구성 (Holonic composition)	공간 구성		홀론적 공간구성이란, 공간체계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그 자체로 독립적 기능을 갖는 단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더 큰 전체를 이루는 공간의 구성방식을 의미한다. 한국전통주택은 방, 마루, 뒷마루, 마당이 하나의 체(단위)로 구성되어있다. 각 체들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등으로 구별되어 독립적 기능을 가지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집을 이룬다. 이런 특성은 홀론적 구성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기본 성격이 같은 각 단위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며 전체의 부분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홀론적 디자인의 장점은 특수 상황에서 그 관계가 단절될 때에도 각 단위들은 다른 부분들의 도움 없이 자기완결적으로 기능을 하거나 특정한 형태를 유지 할 수 있다.	 도산서원 정교당(출처: 임석재, p.242)	 수백당, 승효상, 1999
전이적 공간 (Transitional space)	공간 구성		전이적 공간이란 '전이'라는 개념을 공간에 적용한 것으로서, 시간경과에 따른 관찰자의 이동을 전제로 하여, 관찰자가 한 공간에서 성격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체험하게 되는 시각적, 물리적, 심리적인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 삽입되는 매개 공간이다. 한국 전통 건축 공간 내에는 마루, 뒷마루, 다양한 마당들과 같은 전이적인 성격을 갖는 많은 공간들이 있다. 이것은 공간 내에서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 시각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공간의 변화를 급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또 이것은 전체공간의 구성상에서 각 공간들의 마디로서 리듬과 질서를 형성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대 건축 공간에서도 다양한 전이공간들이 사용 된다.	 창덕궁 가경당 (출처: 류경수, p.96)	 엇더룬, 김부곤
바닥 차이에 의한 위계 (Hierarchy by floor level)	공간 구성		공간체계상에 공간구성 측면에서,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비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unit들은 다른 unit들에 비해 우월성을 지니며, 전체 공간구성이 main space에서부터 sub space의 성격을 갖는 각각의 unit들이 일정한 축을 따라 위계적인 질서를 이루도록 배열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통 건축 공간의 각 체(단위 공간)들은 동일한 비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의 정도가 다르게 일정한 축을 따라 배치되면서 위계성이 표현된다. 특히 각 체를 바닥의 높이를 다르게 하여 공간의 위계적인 질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창덕궁 성정각 (출처: 류경수, p.96)	 QUAD, 김명길
프라이버시의 점이성 (Gradation of privacy)	공간 구성		프라이버시의 점이성 개념이란, 공간체계상에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공간의 계층적 질서를 부여하는 한 방법으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격리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프라이버시 정도의 변화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한국의 전통 건축공간에서는 공적(바깥채)-반공적(행랑채)-반사적(사랑채)-사적공간(안채)의 점진적인 변화로 공간을 구성하면서 공간의 계층적 질서가 형성된다. 현대공간에서도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진입과정상에 프라이버시의 점진성에 의한 공간의 위계적 질서가 형성되기도 한다.	 연경당, 안채 (출처: 류경수, p.118)	 호유재, 김효만, 1996
변화 가능한 공간 (Changeability)	공간 구성		공간체계 상에,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용도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간구조의 변화가능성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전통 건축의 한 특징은 공간구조의 가변성이다. 특히 벽들이 미닫이 혹은 접어 올라가는 문으로 되어있어 벽 전체를 제거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밀거나 접음으로써 공간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외부공간과의 통합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가변성 개념은 기능의 변화나 복합기능을 요구하는 현대건축 공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경복궁, 자경전 (출처: 류경수, p.70)	 에이제, 스티븐 함
다양한 중정 마당 (Various central yards)	공간 구성		공간체계 상에,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각 실들을 배열하여 중정마당을 형성되되 크고 작은 다양한 중정이 생겨나도록 각 실들을 배열하는 것이다. 한국 전통건축 공간은 여러 체(단위 공간)들이 마당을 중심으로 7자 ㄷ자 ㄱ자 ㅂ자 ㅅ자 들로 배열되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시각형의 중정형 마당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정형 마당들은 사계절에 따른 자연의 다양한 변화를 담아내며, 각 실들이 이 마당을 향해 열려있어서 이들은 내부공간의 시각적 심리적 확장공간임과 동시에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도산서원, 농운정사 (출처: 류경수, p.255)	 수백당, 승효상, 1999
모퉁이가 열린 공간 (Space with opened edges)	공간 구성		사각형의 공간을 구성하는데 기하학적인 완결성이 강한 폐쇄된 사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의 모서리를 트이게 하여 공간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전통건축 공간의 사각형의 중정형 마당들은 크기나 표정에서 다양하며 완결된 기하학적 형태가 아니고 모서리가 조금씩 열려있다. 서양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폐쇄적인 사각형의 중정형 마당에 비해 이들은 공간을 투명하고 개방적인 특성을 갖도록 하여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병선서원, 입교당 (출처: 류경수, p.249)	 MANA, 양진석
회색 공간 (Gray space)	공간 구성		회색공간이란, 공간체계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내부와 외부 사이에 인접 배치되어서 내부와 외부공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그 기능도 고정되지 않는 빈 공간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일본의 건축가 黒川紀章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흑백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회색공간이라고 칭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공간의 뒷마당, 옆마당 등은 이러한 성격을 갖는 빈 공간들로서 내부공간과 비슷한 규모로 연결되며 때에 따라서는 4계절의 변화에 따른 공간이미지 변화를 내부에 담기도하고 내부공간의 심리적 개방감과 시각적 확장감, 공간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영역으로서, 현대공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연경당, (출처: 주남철, p.126)	 백선디자인스튜디오, 김백선
연속적 공간 (Continuity of space)	공간 구성		연속적 공간이란 공간구성 체계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 인접해 있는 여러 개의 공간들이 그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 구분되 단절된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상호 연결되도록 배열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간 순환체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항상 단혀짐과 열려짐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전통공간은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져서 통행자가 공간을 이용할 때 공간의 단혀짐과 열려짐을 동시에 체험하며 공간이 막힘이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	 경복궁, 자경전 (출처: 류경수, p.70)	 유리투자컨설팅, 김경숙

반투명 벽 (Translucent wall)	벽 구성	 <p>반투명 벽이란, 에워쌌 체계의 벽을 구성하는데, 벽을 투명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통과하는 빛을 산란시켜 벽이 투명한 특성을 갖도록 계획된 벽을 의미한다. 한국전통 건축은 문이나 창틀이 전체 벽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들의 소재로 사용된 창호지는 반투명한 특성을 갖고 있어 벽에 반투명성을 부여한다. 또 이것은 강한 자연채광의 빛을 일부 걸러 분산시켜서 실내를 부드러운 빛을 갖는 공간으로 만든다. 현대 공간에서는 창호지나 반투명 유리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이러한 효과를 갖는 벽으로 디자인 되기도 한다.</p>	 <p>연경당 사랑방 (출처:주남철, p.103)</p>	 <p>꽃두레, 미영범</p>
접어 들개 벽 (Folding-lifting wall)	벽 구성	 <p>접어 들개 벽이란, 에워쌌 체계의 벽 구성 있어서, 벽전체가 손쉽게 완전히 제거될 수 있어서 접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조로 하여 공간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한국 전통 건축공간의 벽은 전체가 문이나 창틀로 되어 있어 손쉽게 벽을 제거할 수 있고 특히 이들의 일부는 접어서 들어 올리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것들은 미닫이 문이나 창틀보다도 공간의 융통성을 부여하는데 효과적이고, 특히 문을 천장에 매달아 놓는 것은 시각적, 심리적으로 내부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또 이런 특성의 독특한 미적 효과로 인해 현대 실내공간에서도 적용되어 나타난다.</p>	 <p>창덕궁, 관물현 대청 (출처:류경수, p.95)</p>	 <p>유황오리진흙구이점, 유정환.</p>
뼈대 (Skeleton)	벽 구성	 <p>에워쌌 체계의 벽 구성 있어서, 외부장식을 최소화시키고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자체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미적효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순결성과 정적성, 단순성의 아름다움을 갖는 것으로, 건축물의 뼈대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구조미학'이라고 부른다. 한국 전통건축의 목구조는 연결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드러나게 하여 구조자체의 단순하고, 정직한, 순결한 아름다움을 갖는다. 현대 건축 공간에서 철골조와 유리벽으로 된 high technology 건축과 구조자체나 기기 설비들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켜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p>	 <p>병산서원, 만대루 (출처:임석재, p.61)</p>	 <p>한기미술관 우규승, 1992.</p>
추상적 면 (Abstract facet)	벽 구성	 <p>추상적 면이란, 에워쌌의 벽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상을 추상화시켜서 선과 면으로 된 기하학적 도형들로 표현한 한쪽의 추상화와 같이 입면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전통주택의 입면은 목구조의 짐은 갈색기둥들이 노출되며 사이에 흰 회벽 마감되어 문과 창틀의 구조체 등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선의 역할을 하여 전체 벽면은 다양한 비례로 입면이 구성 분할된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마치 흰색 캔버스 위에 갈색 선들이 그려낸 추상화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런 벽면 구성방식을 건축가 임석재는 '추상 입면'이라 불렀다.</p>	 <p>도산서원, 도산서당 (출처:임석재, p.74)</p>	 <p>다담선 찻집, 이명희</p>
메시지 전달 통로 (Path as a message)	동선	 <p>메시지 전달 통로란, 동선체계에 있어서, 동선 상의 통행로에 특정한 상징물이나 형태 혹은 디자인 기법 등을 적용하여 지나가는 통행인에게 어떤 의미나 의도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고, 동선을 유도하도록 계획하는 디자인 개념이다. 한국전통의 궁궐이나 사찰 같은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찰들에는 입구부터 불상이 있는 주 건물에 이르기까지 긴 통로주변의 자연환경이나 계단 탐등의 건축적 장치들을 이용하여 길을 유도함으로써 종교적 경이감이 고조되도록 의도되었다.</p>	 <p>봉정사, 덕취루 (출처:임석재, p.211)</p>	 <p>한기미술관, 우규승</p>
부드러운 빛 (Mild light)	빛	 <p>부드러운 빛이란, 공간구성 요소의 빛 조명체계에 있어서, 자연채광을 실내에 받아들이는데 극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고 한 단계 걸러져서 실내로 유입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한국전통주택의 향은 남향배치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동, 서향에 비해 아침저녁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지붕의 처마를 여름 빛 각도와 겨울 빛 각도의 중간 지점까지 길게 내려 여름의 뜨거운 빛은 차단하고 겨울의 따스한 빛은 집안 깊이 스며들도록 하여, 생활환경에 적합한 조절된 빛을 실내에 유입시킨다.</p>	 <p>양동마을, 향단 (출처:임석재, p.138)</p>	 <p>수졸당, 승효상, 1993</p>
겹 구성된 경치 (Multi-layered vista)	조망	 <p>겹구성된 경치란, 컨텍스트 체계 상에 조망을 계획하는데, 일련의 연속되는 공간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여러 개의 layer들이 겹쳐지는 형태로 보여 지는 시각적 효과를 갖도록 하는 디자인 개념이다. 이것은 한국전통 건축공간이 갖는 중요한 특성이자 내부와 내부, 외부, 전이공간들이 인접해치 되면서 출입문이나 모서리들이 트임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막힘이 없이 층을 이루며 겹쳐져서 보이게 되며, 이러한 특성은 공간의 깊이 감을 느끼도록 해 준다. 이것은 앞의 표1에 소개된 Enfilade, 혹은 Internal vista와는 달리 건축공간의 내·외부 공간이 동시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디자인 개념이다.</p>	 <p>도산서원, 하고직사 (출처:임석재, p.318)</p>	 <p>한솔집, 허서구, 2001</p>
유동체성 (Fluidity)	조망, 동선	 <p>유동체성은 컨텍스트 체계 내의 조망체계나 동선체계의 특성에 동시에 관련된 개념이다. 시각적으로나 동선 상으로 공간 내에 막힘이 없이 물 흐르는 듯한 체계로 연속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 건축 공간의 들어올개 문으로 된 가변적 벽 구조, 반 개방적인 창호지로 만든 문과 창, 틈바루를 이용해 연결한 내부, 외부 동선체계, 모퉁이 트인 마당 등이 이러한 특성을 갖도록 한다.</p>	 <p>창덕궁, 대조전수리간 (출처:류경수, p.92)</p>	 <p>유리투자컨설팅, 김경수</p>
틀 안의 경치 (Framed scenery)	조망	 <p>틀안의 경치란, 컨텍스트 체계 내의 조망체계에서, 외부의 경치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내부와 외부를 막고 있는 벽에 프레임으로 된 창문이나 문을 설치하여 외부공간의 일정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그 틀안에 담아내는 것을 말한다. 그 틀이 회화에서의 캔버스 프레임과 같은 역할을 하여, 차경 되는 장면을 자르고 다듬어내는 기능을 갖도록 한 것이다. 한국전통 건축 공간에는 이렇게 의도된 창과 문들이 많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관속사의 미륵전을 들 수 있다. 외부의 경치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에 있어서는 borrowed scenery와 동일하지만, 특히 이 개념은 외부경치 가운데서도 일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틀 안에 담아내어 하나의 독립적인 그림과 같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p>	 <p>관속사 미륵전 (출처:임석재, p.337)</p>	 <p>중암, 김개천</p>

연속적인 장면 (Serial view)	조망 	컨텍스트 체계상의 조망체계에 있어서, 이 개념은 동적시각(Kinetic vision)을 전제로 한 것으로, 관찰자가 비 직선적인 길을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시각하게 되는 시각적 장면의 패턴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계획하는 디자인 개념이다. 한국전통 건축 공간에서는 사물이나 공간을 언제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 왔기 때문에 이 개념이 건축공간구성의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되어 나타난다. 특히 여러 '체'들이 찍어져서 배치되어, 관찰자는 입구부터 안쪽의 내부 깊은 공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방향을 전환하게 되며, 그 방향전환의 매 순간마다 관찰자는 여러 가지 장면들의 시각적 패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연경당, 안중문	 QUAD, 김명길
상호 침투적 공간 (Interpenetrating Space)	내외 부공간의 관계 	컨텍스트 체계내의 내외부 공간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상호 교차 혹은 침투되어서 상호간에 구분이 뚜렷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외부공간이 상호 통합되는 특성을 갖도록 하는 디자인 개념이다. 한국전통 건축공간에는 자연과의 합일을 구현하기위한 한 방법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 공간들이 많이 존재한다. 주변 개천의 물이 담장을 통과하여 주택내부로 흘러 지나가도록 한다거나, 벽 구조가 없이 지붕과 바닥, 기둥으로 되어있어 외부의 햇빛이나 공간가 자연스럽게 내부와 통합되도록 한다거나, 벽구조가 가변성이 있어 들어 올려놓거나 완전 제거하여 내부의 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도록 하거나, 통합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소쇄원, 광동각 (출처:류경수, p.330)	 호유재, 김효만, 1996

<표 2> '한국성' 공간디자인 개념 추출(구성 원리적인 측면)

디자인 개념	특성	이미지
자연과의 조화 (Harmony with nature)	한국성 디자인 개념들의 기본 원리로서 작용한 개념들 중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연과의 조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인간과 지구, 우주는 하나라는 생각은 한국 전통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동양사상의 음양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인간은 소우주이며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인 통일체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변형시키기 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며 자신을 적응시켜야 한다. 한국의 전통 건축의 디자인은 이러한 사상이 기초되어서 인간과 주위를 둘러싼 자연환경 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꾀하고자 하는데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관련된 구성요소의 디자인 개념: 다양한 중정 마당, 모퉁이가 열린 공간, 회색 공간, 접어 들게 벽, 틀 안의 경치, 상호 침투적 공간)	 소쇄원, 광동각(출처:권영걸, p.140)
유기적 상호 관련성 (Organic interrelationship)	유기적 상호 관련성이라는 개념은 한국 전통 사상의 전반에 나타나는 것으로, 우주의 모든 객체들은 일대 일의 관계가 아니라 그물망 적인 관계로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새로운 통일체를 형성하며 각 개체들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건물, 건물과 건물 등의 모든 것에 적용된다. 이런 사상적 특성은 건축 공간 디자인에서 원리로 작용되어서 모든 한국 전통 건축공간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인간, 건축물이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도록 디자인 되었다. (관련된 구성요소의 디자인 개념: 홀론적 공간구성, 전이적 공간, 연속적 공간, 회색 공간, 변화 가능한 공간, 다양한 중정 마당, 모퉁이가 열린 공간, 겹 구성된 경치, 유희체성, 상호 침투적 공간)	 병산서원(출처:류경수, p.249)
상호보완적 이중구조 (Complementary Dual Structure)	주요한 한국의 전통사상인 음양이론에 따르면, 모든 우주는 남과 녀, 하늘과 땅,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음극과 양극의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성질을 의미하는 음과 양의 서로 대립되는 것들의 대립 및 조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균형을 이루며 우주를 운행하고 있다. 즉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성질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우주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이런 사상은 전통건축 공간에 상호보완적 이중구조라는 원리로 작용되었다. 한국의 전통건축에는 자연과 인공, 부분과 전체, 대청과 비대청, 긴장과 이완,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폐쇄공간과 개방공간,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 등의 대립적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들 간에 상호 역동적인 작용에 의해 공간의 다양함과 연속성을 느끼도록 한다. (관련된 구성요소의 디자인 개념: 홀론적 공간구성, 연속적 공간, 변화 가능한 공간, 겹 구성된 경치)	 연경당, 안중문(출처:주남철, p.100)
공간의 시간성 (Temporal change of space)	한국전통 건축공간에는 완성된 정지된 개념이 아니라 진행 과정상(process)에 있는 움직이고 있는 시간성의 개념이 중요한 원리로서 작용하였다. 이것은 전통건축공간에 원리로서 작용된 사상인 음양 오행론이 우주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을 존재적 측면에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음양의 상보적 이원구조의 개념 역시 미완결의 상태에서 상호역동적인 작용에 의해 완결의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관련된 구성요소의 디자인 개념: 전이적 공간, 프라이버시의 점이성, 회색 공간, 연속적인 장면, 변화 가능한 공간)	 연경당(출처:주남철, p.126)
위계적 질서 (Hierarchical order)	상하관계의 위계적 질서를 중요시 여겼던 유교사상은 전통 건축 공간디자인에서 원리로 작용되어, 건축 공간에 위계적 질서가 존재한다. 전통 건축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체들은 그 중요성에 따라 각기 다른 비중을 갖고(주 공간, 부 공간) 일정한 축(axis)을 따라 질서 있게 배치되며, 특히 바닥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각 체들(단위 공간들)의 위계성을 표현했다. (관련된 구성요소의 디자인 개념: 바닥 차이에 의한 위계, 프라이버시의 점이성)	 부석사 안양루(출처:임석재, p.204)

본 연구에서는 '한국성'이라 말해질 수 있는 디자인 특성들을 개념화하여 총 25가지로 정리하였다. 그 25가지 개념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특성들을 개념화시킨 것이지만, 몇 가지는 개념 형성 뿐 아니라 특성까지도 여기서 새로이 추출해 낸 것이다. <표 2>에서는 각각의 개념들을 간략하게 정의하고 그 특성들을 설명한 후 관련 사례들을 첨부하였다.

이 한국성을 표현한 개념들을 다시 <표 1>의 분류들에 적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여기서 제시된 25가지 개념 가운데 20가지는 실내건축 공간의 구성요소에 속하는 것이며,

5가지는 구성원리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 1>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구성요소에는 다시 8가지 범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흐름적 공간구성', '전이적 공간', '바닥차이에 의한 위계', '프라이버시의 점이성', '변화 가능한 공간', '다양한 중정 마당', '모퉁이가 열린 공간', '회색 공간', '연속적 공간' 등의 9가지 개념들은 공간구성(Spatial Composition)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투명벽', '접어 들개 벽', '빠대', '추상적인 면'의 4가지 개념은 에워쌌 체계의 범주에 속하며, '매지시 전달 통로'는 동선(Circulation)체계의 범주에, 그리고 '부드러운 빛' 개념은 빛 조명(Light)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접 구성된 경치', '유동체성', '틀 안의 경치', '연속적 장면' '상호침투적 공간'의 5가지 개념은 컨텍스트 범주에 속한다.

3.2. 실내건축 공간의 구성 원리적인 측면

한국 전통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특성들은 사회, 문화, 사상적 배경들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사상적 배경들은 디자인의 기본 원리로서 작용되었다. 즉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이들 디자인의 구성 원리들은 앞서 제시한 구성요소들의 디자인 개념들의 기본원리로서 작용되어졌다. 이것에 속한 것으로는 '자연과의 조화', '유기적 상호 관련성', '상호보완적 이중구조', '공간의 시간성', '위계적 질서'의 5가지가 있다.<표 3>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실내건축 공간에 '한국성'의 개념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국적 디자인 특성들을 보편적 디자인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디자인 개념들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적 디자인의 특성들을 개념화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더불어 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한국적 디자인의 개념들은 구성요소적인 측면에서 20가지, 그리고 기본 원리적 측면에서 5가지, 총 25가지로 제시되었다. 향후, 이들 25가지 디자인 개념들은 더 자세한 도식과 설명들, 더 많은 사례들이 첨부되어서 web-site 상에 올려 저서 학생들이나 실제 디자이너들이 개념을 형성하거나 발전시켜나가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되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디자인 개념들과 또 그것을 추출해 내는 방법들은 실내건축학에서 중요한 디자인 개념이론을 발전시켜나가는데 기초가 될 수 있으며, 또 지속적으로 디자인 개념들을 발견해 나가는데 필요한 새로운 방법으로 제안 될 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 간략한 용어로 명명하여 간단한 도식으

로 제시된 개념들은, 그동안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제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던 점을 다소나마 감소시켜 주는데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뿐 아니라 앞으로 기능이 다른 다양한 공간들(예로서, 사무 공간, 전시 공간, 호텔, 레스토랑, 식음 공간, 박물관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그것들에 내재된 디자인 개념들을 추출하는 작업이 더 진행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권영걸, 공간디자인16講, 도서출판국제, 2001.
2. 김흥기, 건축 조형 디자인론, 기문당, 2002.
3. 오인옥, 실내디자인학, 기문당, 2002.
4. 임석재, 우리 옛 건축과 서양건축의 만남, 대원사, 1999.
5. 류경수,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대원사, 2000.
6.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2.
7. 주남철, 연경당-한국 전통건축을 찾아서1-, 일지사, 2003.
8. 공간디자인비평 연구회, 공간 속의 디자인 디자인 속의 공간, 효형출판, 2003.
9. 김훈령, 한국전통공간에 나타난 전이공간의 현대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사논문, 2001.
10. 한상식, 상보적 이원구조로 본 현대 한국 건축의 한국성 표현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2.
11. 공성준, 한국 전통 공간에 나타난 동적시선에 의한 공간인식 변화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2.
12. 이지연, 한국전통 실내건축의 여허공간의 개념과 결합 방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0.
13. 이원교, 반가의 공간구성과 마당의 공간 도식, 한국전통건축의 공간구성, PLUS, 1989, 3.
14. 정무용, 공간의 계층적 질서, 한국전통건축의 공간구성, PLUS, 1989, 7.
15. 한경희 외, 유형학적 접근 방식에 의한 실내디자인 과정에 관한 연구 (II),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99, 12.
16. 한경희 · 이선민, 실내계획이론으로서의 유형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실내 디자인학회지, 16호, 1998.
17. 장경호, 전통건축의 내부 레벨 변화에 의한 공간적 효과,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구성, PLUS, 1989, 11.
18. 김경재, 한국현대건축에 표현된 한국성의 특성에 관한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99, 12.
19. 이주혜, 현대 실내디자인에 나타나는 한국성의 공간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2, 10.
20. 서수경 외, 업무 공간 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실내 디자인학회논문집, 2003, 4.
21. 홍진영 외, 호텔 로비공간에서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0, 3.
22. INTERIORS, 가인디자인그룹, 1997, 7-2004, 3.
23. Edward T. White 著, 조철의 譯, Concept Source Book, 서울: 시공문화사, 2002.
24. Robert Maxwell, Polemics. The Two Way stretch: Modernism, Tradition and Innovation London: Academy edition, 1996.
25. Micha Bandini, Typological Theories in Architectural Design, Companion to Contemporary Architectural Thought London:Routledge, 1993.
26. Lyndon and Charles w. Moore, Chambers for Memory Palace, Cambridge: MIT Press, 1996.
27. Francis D.K. Ching, ARCHITECTURE Form, Space, and Order, Wiley, 1996.

<접수 : 2005. 8. 23>